

“좋은 친구와 소중한 추억 남겼어요”

고성군·강북구청 청소년 교류 캠프 ... ‘좋은 친구되는 우정 만들기’

고성군과 서울 강북구청 청소년 교류캠프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좋은 친구되는 우정만들기 캠프’란 주제로 개최됐다.

고성군과 강북구청 청소년 교류캠프는 격년제로 상호 지역을 교환 방문하고 있는 교류캠프는 생활환경과 거주지역이 다른 청소년들이 체험활동과 견학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며 청소년 상호간 우정을 다지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첫째날인 20일 만남의 날에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챌린지 벨리, 숲속하이킹의 모험활동과 전통떡을 만들어보고 시식해 보는 문화감성활동이 진행됐다.

둘째날인 21일 도전의 날에는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화진포해양박물관 등 견학활동으로 진행됐다. 바다레프팅을 비롯해 바나나 보트, 수영 등 해양활동과 장기자랑, 캠프화이어 등 문화여가활동도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고공활강 및 스피드 카드 등 신나는 체험활동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즐겁고 신나는 청소년 교류캠프가 마무리됐다.

청소년 교류캠프에 참석한 서

울 강북중학교 홍진영 학생(2년)은 “학교에서 추천해 한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고성을 찾게 돼 무척 흥분이 됐다”며 “공기 좋고 경치가 좋은 고성에서 2박 3일간의 추억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고성지역 참가자인 고성중학교 김소원 학생(2년)은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 무척 신나는 캠프였다”며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속에서 다져진 우정의 교류캠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과 서울 강북구청 청소년 교류캠프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됐다.

광산초 5~6년생 인성교육 실시



광산초등학교(교장 이태윤)는 지난 16일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간성향교 윤근호 전교가 나와 1시간 가량 충효사상 등에 대해 강의했다.

최광호 기자

가족 사랑의 날 ‘DIY 수납함 만들기’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건강지원센터(센터장 최혜경)는 지난 20일 여성회관 2층 강의실에서 고성군 거주 10가구를 대상으로 소가구 수납함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매월 3째주 연중행사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심재순 강사(바다지기공방 대표)를 초빙해 가족들과 함께 DIY 가구를 우리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납함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건강지원센터는 여름방학

을 맞아 고성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오키리나 교실 및 댄스댄스교실로 운영된다.

오키리나교실과 댄스댄스교실은 고성지역 초등학생 누구나 지



원이 가능하며 15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 681-9333 >

박승근 기자

4월 11일 OPEN

개 장 수 영 양 탕 업

메뉴 영양탕 전골 무침 추어탕 ※닭도리탕·황태전골은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업소는 국내산 고기·쌀·김치만 사용합니다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제가 고성군청 앞 골목길 근처에서 ‘장수영양탕’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푸짐하게 내놓겠습니다.

대표 우 옥 기

☎681-6010

※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영업합니다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은 쉽니다

